

2019년 통권 제 27권 제 1호

2019年 史學科 春季學術古蹟踏查



亞洲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국가의 주요통치기반인 종교>

목차

- 답사 일정
- 답사를 준비하며
- 우리가 가는 길
- 지역개관 ; 안동, 경주

유교- 유교 그리고 서원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 선생의 일생

1. 선조들의 생활학문, 유교
2. 유교문화박물관
3. 도산서원
4. 회재 이언적
5. 독락당
6. 옥산서원
7. 양동마을

불교- 경주의 옛 모습, 불교 국가 신라

1. 불국사
2. 문무대왕릉
3. 황룡사지
4. 분황사
5. 대릉원
6. 경주박물관
7. 안압지

답사 일정

 <p>2019년 사학과 춘계 학술 고적 답사</p>	<p>1일차 <3월 28일 목요일></p> <p>8시 50분 원천관 앞 집합 9시 아주대학교 출발 09:00 - 12:20 유교문화박물관으로 이동 12:20 - 13:00 점심식사(유교문화박물관) 13:00 - 14:30 유교문화 박물관 14:30 - 14:50 도산서원으로 이동 14:50 - 15:20 도산서원 15:20 - 18:10 숙소로 이동</p>
<p>2일차 <3월 29일 금요일></p> <p>8시 기상 9시 숙소에서 출발 09:00 - 09:10 불국사 이동 09:10 - 10:10 불국사 10:10 - 10:50 문무대왕릉 이동 10:50 - 11:30 문무대왕릉 11:30 - 12:20 황룡사역사문화관 이동 12:20 - 13:20 점심식사 13:20 - 14:05 황룡사 역사문화관 14:05 - 14:10 황룡사지, 분황사 이동 14:10 - 14:50 황룡사지, 분황사(20분씩) 14:50 - 15:00 대릉원 이동 15:00 - 16:00 대릉원 16:00 - 16:10 경주박물관 이동 16:10 - 17:30 경주박물관 17:30 - 17:35 안압지 이동 17:35 - 18:15 안압지 18:15 - 18:45 숙소로 이동</p>	<p>3일차 <3월 30일 토요일></p> <p>8시 기상(8시 45분부터 정리) 9시 숙소에서 출발 09:00 - 10:00 독락당 이동 10:00 - 10:30 독락당 10:30 - 10:32 옥산서원 이동 10:32 - 11:05 옥산서원 11:05 - 11:25 양동마을 이동 11:25 - 12:20 양동마을 12:20 - 12:30 식당으로 이동 12:30 - 13:30 점심식사 13:30 - 17:30 아주대학교로 이동</p>

답사를 준비하면서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사학과 학생회 ‘더함’의 학생회장 18학번 이현석입니다. 2018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제가 2019학년도 사학과 학생회장 직을 맡아 학과 주요 큰 행사인 학술 고적 답사를 준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술 고적 답사가 주요 행사인 이유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의 뜻처럼 직접 체험하는 학술적 목적과 더불어 학우들 간의 친목 도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27대 사학과 학생회 ‘더함’은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이전보다 더 나은 답사를,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기억의 남는 첫 번째 답사를 선물해드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27대 사학과 학생회 ‘더함’은 방학에 모여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선배님, 교수님의 조언을 받으며 열정을 다해 2019학년도 춘계 학술 고적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춘계 학술 고적 답사는 이전 답사와 다르게 학생 여러분께서 가시고 싶은 지역, 접하고 싶은 역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답사 지역을 선정을 추천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가 이번 춘계답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상북도를 답사 지역으로 한 주제 선정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역에서 국가의 주요 통치기반이었던 두 종교인 유교와 불교를 떠올렸고 안동과 경주를 방문하며 유교와 불교에 대해 배우고자 ‘국가의 주요 통치기반인 종교’를 답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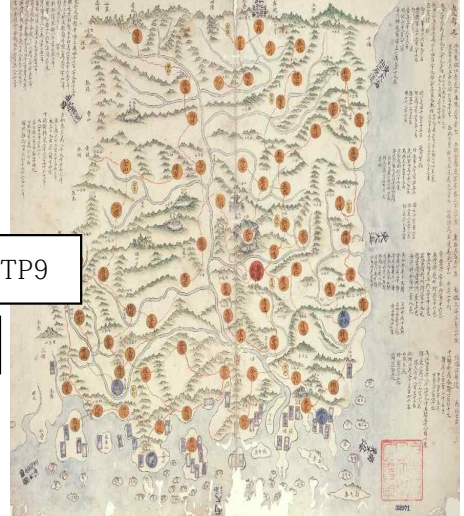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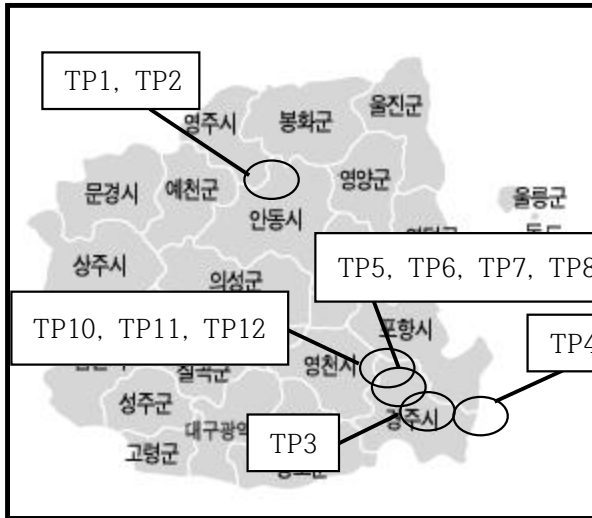
저희 27대 사학과 학생회 ‘더함’은 춘계 학술 고적 답사를 준비하며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경상북도로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답사는 장거리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학생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중점에 두고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전답사를 통해서 이번 답사 일정을 더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춘계 학술 고적 답사를 준비하며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고생한 ‘더함’의 임원진 부학생회장 슬비, 사무국장 연주, 기획국장 성은이, 홍보국장 유나 그리고 학술국장 예찬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이상국 교수님 그리고 박준용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록 작성을 위해 고생한 18학번 역사기행반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2019년 춘계 학술 고적 답사가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되기를, 여러분께 가장 기억에 남는 학술 고적 답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사학과 학생회장 18학번 이현석

우리가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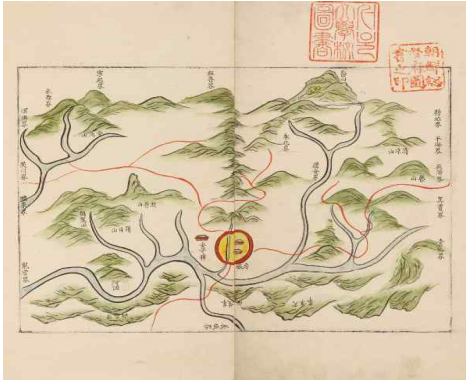


3월28일 (목)	TP1	TP2					
	유교문화 박물관	도산서원					
3월29일 (금)	TP3	TP4	TP5	TP6	TP7	TP8	TP9
	불국사	문무대왕릉	황룡사 역사문화관 황룡사지	분황사	대릉원	경주 박물관	안압지
3월30일 (토)	TP10	TP11	TP12				
	독락당	옥산서원	양동마을				

안동지역 개관

18 김주영

안동지역 소개



▲안동지역 고지도

경상북도 북부에 위치한 안동은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이고 위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안동은 동해 해안지역과 국토 내륙지역을 중개하는 지역이고 우리나라의 4대 강 중 하나인 낙동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해있다. 또, 교통이 편리하여 대도시권으로 다른 경상도의 도시들보다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동쪽으로는 영양과 청송, 서쪽으로는 예천, 남쪽으로는 의성, 북쪽으로는 영주와 봉화에 인접해 있다. 안동은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여서, 다양한 역사유적지들이 존재하고 전통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안동지역의 유래와 역사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안동은 처음부터 ‘안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안동이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이름이다. 안동은 BC 57년 창녕국이 건국되면서 그 유래가 시작이 된다. 이후 신라시대에 이르러 고타야군으로, 한 때 고구려가 전성기였을 시절에는 고구려에 속해서 굴하현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선 세조 때에는 진을 설치했고, 고종 32년에는 ‘안동군’으로 변경되었다. 1914년 예안군을 병합하여 19개의 면으로 안동군이 편성되었으며, 1931년 안동면을 안동읍으로 승격시켜 1읍 15면이 되었다. 이후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의 안동시로 나오게 되었다.

안동지역의 문화유산

안동지역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라는 이름에 맞게 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이 존재한다. 안동 하회마을은 현재 풍산 류씨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징비록」을 서술한 류성룡도 이 하회마을에서 배출했다. 그리고 안동 지역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학

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퇴계 이황이 제자들이 만든 도산서원이 존재한다. 홍선 대원군이 서원 철폐 정책을 실시했을 때, 남은 47개의 서원 중 하나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서원 뿐만 아니라 유명한 절도 안동지역에 존재하는데, 그 절의 이름이 봉정사 극락전이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국보 제 15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심포 양식을 갖춘 절이다. 이 절의 특징으로는 한국의 절에서 보기 힘든 배흘림기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건축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의 건물로, 국내의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건축물로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높다.

사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서 안동지역의 문화유산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안동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문화재들과 유적지들 그리고 전통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고대 미륵불, 무당과 같은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 등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여 지금까지 쪽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안동은 이번 답사의 주제인 ‘국가의 주요통치기반인 종교’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유교문화 정신이 가장 많이 깃들여 있어 곳곳마다 서원이 존재한다.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서원들은 다 안동지역에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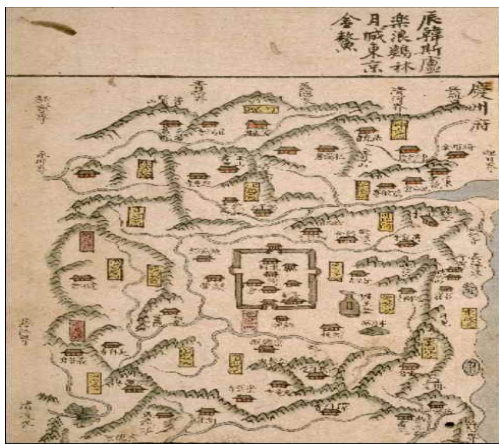
안동은 유교문화뿐만 아니라 명문 양반가문들의 고장이기도 하다. 안동 권씨, 안동 김씨 등 당대 국가 지배층으로 존재한 가문들이 안동 지역에 많이 존재한다. 또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령인 석주 이상룡 선생, 국민회의 의상 일송 김동상 선생뿐 아니라 현대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항시인 이육사 시인 등이 안동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번 춘계답사의 주제는 ‘국가의 주요통치기반인 종교’이다. 안동은 이러한 주제에 맞게 국가의 주요 통치기반이었던 유교문화가 전국에서 많이 깃들여져 있고, 옛날 선비들의 정신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애국충정의 정신이 드러나 있다. 이번 안동지역 답사를 통해 이러한 정신들을 느껴보면서 귀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

경주 지역개관

18 윤예찬

경주지역 소개



▲ 경주지역의 고지도

경주에 존재하는 여러 서원, 양반마을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 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 마을 등 유교 문화의 모습 역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주의 여러 문화재들을 관찰하고 답사하는 것이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한 여러 종교와 그로 인해 발달된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경주는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청도군과 영천시, 남쪽은 울산광역시 그리고 북쪽은 포항시와 접하고 있다. 기후의 측면에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을 짓는데, 해안지역은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부 해안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륙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내륙성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해발고도 혹은 경사도를 기준으로 삼아 세 가지 지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동쪽과 서쪽 지역은 모두 산을 중심으로 산계를 이루고 양 산계의 중앙에 있는 지역은 평야 지역이 되고 지류가 흘러 비옥한 농업지대가 되어 많은 양의 곡식들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논과 밭의 비율이 7:3 정도로 논농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평야지역이 경상북도 내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무려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주가 주로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 역시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나라의 수도로 장시가 형성되거나 여러 품목들이 교환되는 등 중심 상

초기 국가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주는 한국고대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시기의 중심에는 신라가 있었고 신라의 중심에는 경주가 있었다. 신라의 역사는 곧 경주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흥왕 통치 시기에 신라는 불교를 공인했고 이를 통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된 불교문화를 보여준다. 이 모습은 불국사, 석굴암 등으로 대표되는 유물을 통해 경주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불교뿐만 아니라

업지역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935년(고려 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고 왕건에게 나라를 바칠 때 신라의 왕경을 강등시키고 경사스러운 고을이라는 뜻을 가진 경주로 개칭하게 되면서 경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¹⁾

경주지역의 유래와 역사

경주는 청동기 시대 이전의 유물, 유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인돌, 청동검, 돌칼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경주지역에서 사람이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특히 구정동, 평동 유적지 등은 후기 청동기, 조양동 유적은 철기 시대를 연구함에 있어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 사로 6촌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사로 6촌의 위치를 보는 견해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경주지역 전체를 포괄한다고 본다. 사로 6촌은 기원 전후에 발전하여 사로국이 되었고 진한 12국 중에 맹주국이 되었다. 이러한 사로 6촌, 사로국에서 발전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신라이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경주를 중심으로 서라벌을 세웠고 신라로 개칭되어 고려에 등장으로 인해 병합되기 이전까지 992년 동안 신라의 왕경이 자리하였다. 한 나라가 이렇게 오랜 역사(천년의 역사)를 유지하는 것도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사례 중 하나이지만 그 오랜 역사 동안 바뀌지 않고 수도의 역할을 한 경주의 사례 역시 세계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긴 세월 한 나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주의 발전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6세기 경 도로망과 주거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8세기에 이르러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삼국 통일 이후 전성기에는 무려 17만 8936호의 인구가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는 경주에서 출토되는 유물, 유적, 문화재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가 쇠퇴하고 고려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경주의 정체는 약속된 수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려 시대가 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하여 나라를 바치게 되고 경주는 인근 지역이 합속 되거나 지역이 강등과 승격 과정을 거치는 등 여러 개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전 시대만큼의 명성은 아니어도 개편 과정 속에서도 나름의 명맥과 명성을 유지했고 12세기 후반 무인 정권하에서 신라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3세기에

1)《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들어서서는 몽고군의 침입으로 인해 문화재가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였는데, 황룡사 9층 목탑이 유실된 것이 가장 유명하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 8도 체제가 확정되고 지방 도시 체제를 확립하는 상황에서 여러 현들을 속현으로 거느린 영남의 큰 읍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왜군의 진격로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치열한 격전지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일어난 관민연합군의 전투들은 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주는 집성촌이 많이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 씨와 손 씨의 집성촌인 양동 마을이 가장 유명하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동학사상의 발원지가 되어 평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3.1운동에 영향을 받아 만세운동을 실시하고 신간회 경주 지부가 존재하는 등 많은 항일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경주 지역 문화유산

선사시대부터 많은 유적을 남기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천 년 동안 신라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물, 유적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획득하였다. 유물의 개수만 하여도 엄청난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만 해도 국보 31점 보물 73점, 사적 및 명승 77개소, 천연기념물 3종, 중요민속자료 16종, 중요무형문화재 2종이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규모를 보여주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봐도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개수가 적지만 경주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천마총으로 대표되는 고분군들이 있는데,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보통 이 유물들은 무덤과 함께 여러 장식품들이나 유물들이 함께 묻혀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함께 매장되어 있던 유물들을 통해 당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라의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문화재 역시 매우 많이 존재한다. 가장 잘 알려진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하여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등 신라 불교 사찰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유적들과 감은사지 삼층석탑으로 대표되는 불탑들과 여러 불상들이 존재한다. 비율을 따져보면 문화유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교 문화재들인데, 이는 불국정토를 속세에 실현하려고 했던 신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옥산서원, 독락당 그리고 여러 고가옥 등 고건축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건축물이 양동 마을과 양동 마을에 속한 손씨, 이씨 가문과 관련이 깊다. 특히 양동 마을은 마을 윗부분에 대종가인 서백당이 존재하고 아래쪽에 소종가인 관가정이 자리 잡은 모습, 구릉 고지대에 양반들의 살림집이 골짜기 아래 저지대에 소작인들과 노비들의 살림집이 자리 잡은 모습 등에서 지형적인 위계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의 양반 마을의 지형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유교- 유교 그리고 서원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
선생의 일생

1. 선조들의 생활학문, 유교
2. 유교문화박물관
3. 도산서원
4. 회재 이언적
5. 독락당
6. 옥산서원
7. 양동마을

선조들의 생활학문, 유교

18 김성빈

유교(儒敎)는 춘추시대(기원전 770-403년) 말기에 공자에 의해 체계화된 유학(儒學)을 종교적 관점에서 이르는 말이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의 이름을 따서 공교(孔敎) 또는 공자교(孔子敎)라고도 한다.

유교는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실현할 목표로 하였으며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이념으로써 인을 삼았다. 춘추시대 말기에 활동한 공자는 노(魯)나라 출신이었는데, 고국을 떠나 15년간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며 ‘선왕(先王)의 도(道)’를 설파하였으나 그의 이상을 끝내 펴지 못하였다. 공자는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양성하며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정리하고 《춘추(春秋)》를 저술하였으며 《역(易)》을 좋아하여 그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십익(十翼)》을 저술하였다.

공자의 사상은 그가 살았던 시기에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그가 죽은 후, 제자들이 수집하고 편찬한 그의 언행은 《논어(論語)》로 정리되어 많은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 공자는 인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인은 곧 효(孝)이며 제(悌)라 하여 가족 사이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강조하고 정치에도 그것을 전개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왕과 신하들이 항상 유교를 공부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백성들 또한 유교 정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유교를 백성들이 알기 쉽게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풀이해 알렸다. 삼강오륜은 삼강과 오륜을 합쳐서 이르는 말로, 유교의 세 가지 기본 강령과 다섯 가지 도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임금과 신하 간), 부위자강(父爲子綱, 아버지와 자식 간), 부위부강(夫爲婦綱, 남편과 아내 간)으로 서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로, 각각 충, 효, 열을 의미한다. 오륜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섬김을 다하며(父子有親 : 부자유친),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君臣有義 : 군신유의), 남편과 아내는 분별 있게 각자의 할 일을 다하며(夫婦有別 : 부부유별),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고(長幼有序 : 장유유서),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朋友有信:붕우유신)는 덕목이 있다.

유교는 정치뿐만 아니라 민간의 생활까지 통제했던 중요한 학문이었으며, 그 윤리는 생활에서 일반화되었다. 유교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선조들의 생활과 사고 방식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문화박물관

2019년 춘계 학술 고적 답사의 첫 목적지인 유교문화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교 전문 박물관이다. 유교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 유교 국가와 서원 등 조선 시대 지방에 거주하던 유학자들의 생활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유교문화박물관은 충분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유교 문화 유물이 전시된 안동 유교문화박물관은 경북지역 여행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곳이다.



▲유교 문화 박물관

2006년 6월에 세워진 유교문화박물관은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속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내 및 해외에 알리고, 국학 자료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유교문화박물관은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이 개별 문중이나 서원 등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소장하고 전시한다.

박물관 본관은 전시실 9개와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공간은 유교의 실천덕목인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매년 2회 이상 기획전시가 이루어진다. 특히, 유교문화박물관의 현판전시관에는 서원, 향교, 종택, 누각과 정자, 재사 등에서 맡긴 원본 현판들이 전시되어 있고, 한석봉이 직접 쓴 도산서원의 원본 현판을 만나볼 수 있다. 다음 일정인 도산서원을 위하여 “유교와 사회” 부분의 “서원기행”을 세세하게 보길 바란다. 여기서는 서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관련된 유물들을 볼 수 있어 도산서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도산서원

18 손지호

퇴계 이황이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쓴 ‘도산서원’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의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성리학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역과 퇴계가 세상을 떠난 뒤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 영역으로 크게 나뉜다.

건물을 남으로 향하게 한 이유는 예를 행함에 있어 편하게 하고자 함이고, '재(齋)'를 서쪽에 두고 '헌(軒)'을 동쪽에 둔 것은 나무와 꽃을 심을 뜰을 마주하며 운

치를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퇴계는 서당의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작은 연못을 팠고, 또 동쪽에 몽천이란 샘을 만들었다. 암서헌 대청에서 낙동강으로 경관이 이어지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자연과 합일하려는 퇴계의 성리학적 자연관을 잘 나타낸다. 또한, 도산서당 내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간결하고 검소하게 꾸며져 퇴계의 인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건물의 이름도 퇴계가 손수 붙여 성리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도산서원 경내 건물로는 제향공간, 강학공간을 형성하는 건물과 기타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강학공간은 높게 조성된 기단 위에 서 있는 전교당을 중심으로, 앞마당 좌우로 동재와 서재가 마주 보며 엄격한 좌우 대칭의 배치를 하여 규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교당에 걸린 '도산서원' 현판 글씨는 한석봉(韓石峯)이 임금 앞에서 쓴 것이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삼년상을 마치자 그의 제자들과 온 고을 선비들이 1574년 "도산은 선생이 도(道)를 강론하시던 곳이니, 서원이 없을 수 없다" 하여 서당 뒤에 나아가 땅을 개척하여 짓기로 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시대는 유학을 기본으로 정치를 펼쳤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교 경전을 익혀야 나라의 일을 하는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서원에서 선비들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유학 경전을 읽고 사색하며 스스로 깨치기도 하고 서원의 중심에 위치한 강당에서 스승과 유생들이 강론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서원에서는 유학 경전을 가르쳤다. 유생들은 소학으로 시작해, 유학의 기본을 다지는 '사

서'와 '오경'을 배우고 이 단계를 지나면 가례, 심경, 근사록, 사기와 같은 수준 높은 학문을 공부하였다. 또한, 도산서원은 퇴계학파의 본산으로서 영남학파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영남지방 유림사회의 중심인 안동·예안 지방은 굵직한 서원과 향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도산서원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도산서원이 발하는 통문은 영남지방 유림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서원이었다.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학문과 현명한 사람들에게 올리는 제사인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설립된 사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이다. 또한, 조선시대 서원은 사림활동의 구심체로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치적으로 서원은 중앙의 정치문제에 대하여 향촌 사림의 여론을 수렴하는 거점이었다. 서원은 중앙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통문을 통하여 공론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유소를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강회를 통하여 학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중요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서원의 사회적 역할은 사림의 향촌활동과 관련된다. 유향소와 향교를 대신하여 향촌사회의 중심기구로 부상한 서원은 사림들의 가장 핵심적인 향촌조직이었다. 이황은 서원의 의미를 “선비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그 힘을 서원에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현인을 얻음에 있어서도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도산서원을 만든 제자들의 스승인 퇴계 이황은 1501년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총명한 자질을 키워왔다. 어릴 때 논어를 깨치며 독서를 즐겼다. 그러나 공부에 몰두한 나머지 병고에 시달리면서 살게 된다. 선생은 28세에 급제하고 관직에 발을 들이게 된다. 중종 말년 어지러운 시국에서 자신의 친한 지인들이 낙향을 결심하자 퇴계 이황도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하였다. 낙향한 퇴계 이황은 낙동강 상류의 토계에 양진암을 세우고 독서에 전념한다. 이때 토계를 퇴계라고 바꾸면서 자신의 호로 삼았다. 이후 계속 관직 임관의 명을 매우 많이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고 물러서기만 하였다. 이후



▲퇴계 이황 초상화

선조가 즉위하자 선조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관직에 다시 나간다. 어린 왕에게 자신의 학문을 펼쳐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다. 그러면서 같은 해 선조에게 자신이 몇 십 년에 걸쳐 연구한 ‘성학십도’를 바쳤다. 이 책을 통해 최고 통치자인 왕의 치열한 자기 연마와 인격적 완성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다시 낙향하여 독서에 전념하다 임종하였다. 참된 선비가 되기 위하여 항상 삼가고 물러나는 경건한 자세를 견지했던 선생은 16세기 조선 왕조 전기의 느슨해진 체제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이루어내 통치이념의 기초를 닦은 나라의 스승이었다. 또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심세력인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은 물론, 제자들을 철저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열심히 가르친 진정한 교육자였다. 그 후학 양성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도산서원이다.

향사례

성현들에게 제사지내는 의례를 향사라고 하는데, 향사례는 선비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인격도야와 심신수련을 위한 예와 도, 그리고 입신양명의 도구적 기능인 술을 근본으로 한 조선사회의 성리학적 행동양식의 표상이었다. 도산서원의 향사례는 퇴계 이황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로, 전통적인 제례문화 원형이 5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온 의식이다. 특히 본 향례는 우리나라 민간차원의 최고 최대의 전통적인 제례행사로서 장소는 도산서원 내 상덕사에서 치러진다.

회재 이언적

18 손지호 정은비 정재현



▲ 회재 이언적 선생

회재 이언적 선생은 경주 양동마을에서 태어났고 호는 회재, 본관은 여주이다. 또한, 이언적은 그의 아버지가 손중돈의 누이와 결혼 후 경주 양동으로 이사하여 낳은 아이이다. 또한, 이언적은 손중돈에게 도움을 받아 23세에 소과에, 24세에 문과에 급제 벼슬을 시작, 31세에 홍문과, 인동현감 등 지방관리를 지냈고 성리학을 가르칠 정도로 학문에 열정적이었다. 1527년 세자를 가르쳤는데 나중에 인종이 되었다. 그만큼 과거에 급제한 뒤,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이언적의 어렸을 때 이름은 이적이었으나 중종의 명에 의해 언자를 덧붙여 언적으로 고쳤다. 임금으로부터 ‘언’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을²⁾ 정도로 왕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인 것이었다.

또한, 회재 이언적 선생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성리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주희의 주리론적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하여 이황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자옥산에 들어가서 독락당을 지어 자연을 벗 삼으며 계속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을사사화 때 사화를 당하고 1547년 양재역 변서사건 등으로 이언적은 평안도 강계로 유배 63세의 나이로 객지에서 죽는다. 그는 사화가 거둬드는 사림의 시련기에 살았던 선비로서, 을사사화 때는 중요한 직책으로 사림과 권력층 간신 사이에서 억울한 사림의 희생을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사화의 희생물이 되고만 것이다. 이후 이언적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독락당에서 가까운 곳에 옥산서원을 창건했다. 호를 ‘회재’라고 지은 것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호 ‘회암’에서 따온 ‘회’자를 사용함으로써 주희의 학문을 따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업적을 남긴 회재 이언적 선생의 성리학 정신은 이후 퇴계 이황에게 이어져 영남학파³⁾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1610년 9월, 이황, 조광조 등과 함께 ‘동방오현’으로 불리며, 문묘에 종사되었다.

2) 왕이 신하에게 성 또는 이름을 하사하는 일은 수혜자의 공적을 칭찬하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신하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일이었음.

3)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상의 유파.

이언적은 하늘과 백성에 순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에 힘쓸 것을 중요시하는 도학적 수양론을 경세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덧붙여 이언적은 내면의 수양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도 강조하였다. 즉 깨달음이란 실천을 통해 오는 것이며 실천이 옳은가 옳지 못했는가를 현실에서 검증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독락당

18 손지호

희재 이언적 선생의 별장 ‘독락당(獨樂堂)’



▲ 독락당(獨樂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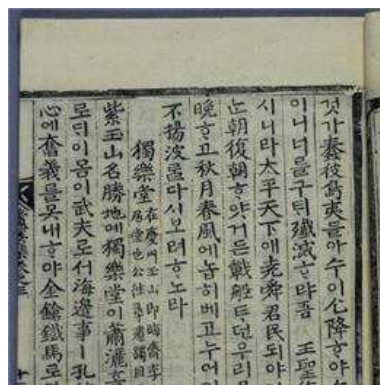
주위로 4산 5대라는 아름다운 경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유명한 시인인 노계 박인로⁴⁾(1561~1642)가 이곳을 찾아와 <독락당>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시의 내용은 박인로가 이언적의 유적인 경주 옥산서원의 독락당을 찾아가 그를 사모하는 심회와 주변 경치를 읊은 것이다.

독락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단층 팔작지붕 집으로 되어있다. 남쪽으로 나있는 대문을 지나면 독락당으로 들어가는 길과 안채인 역락재로 들어가는 길이 별도로 있어 남성들이 출입하는 독락당과 여인들이 출입하는 안채와 길이 갈라지게 되어있다. 낮은 기단 위에 서 있는 팔작집은 마주

향하여 오른쪽은 널찍한 대청이나 앞을 모두 터놓았고 왼쪽은 칸을 막아서 온돌방을 꾸몄다. 그러나 원래는 맨 오른쪽 칸도 막아서 방으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어 대청은 가운데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둥은 둥근기둥을 세우고 대청 천장

독락당(獨樂堂)은 이언적이 자신의 별장이자 서재로 사용해왔던 사랑방이다. 이언적은 사간원 사간으로 관직을 지내고 있었을 당시, 김안로를 재등용하려는 논의를 반대하다가 김안로 일당에게 숙청되었다. 이런 연유로 낙향하면서 지은 집이 바로 독락당이다. 여기서 ‘독락’이라는 뜻은 정경을 사랑하고 또 고독을 달래고 홀로 즐기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독락당



▲ 노계집-독락당

4) 가사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조선 중기 무신 겸 시인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守門將)·선전관을 지냈다. 박인로가 쓴 주요 작품으로는 《노계집(蘆溪集)》, 《태평사(太平詞)》 등이 있다.

은 뼈대가 모두 노출된 연등천장이다. 독락당 옆쪽 담장에는 좁은 나무로 살을 대어 만든 창을 달아 이 창을 통해서 앞 냇물을 바라보게 한 것은 아주 특별한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독락당 뒤쪽의 시내에 있는 정자 또한 자연에 융합하려는 공간성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옥산서원

18 정은비

회재 이언적 선생의 선비정신이 담긴 서원



▲ 옥산서원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 선생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서 1573년에 창건된 서원이다. 이 사원은 1574년, 옥산이라는 사액⁵⁾을 받았으며, 흥선대원군 시절 진행된 서원 정리에 포함되지 않은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다. 옥산 서원은 서원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관하고 있는 서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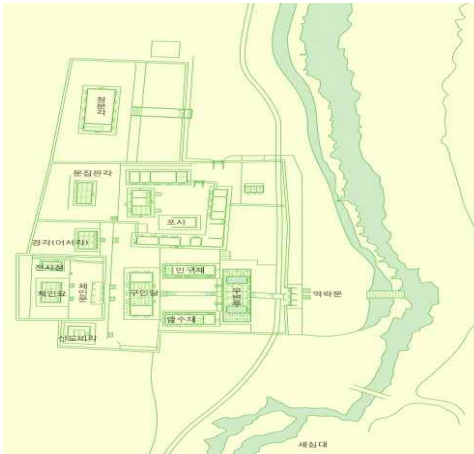
이 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회재 이언적 선생은 경주 양동마을에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한 뒤,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임금으로부터 ‘언’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을⁶⁾ 정도로 왕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은 이언적 선생은 관직을 그만둔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독락당을 지어 자연을 벗삼으며 계속 성리학 연구에 힘썼다. 이후 이언적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독락당에서 가까운 곳에 옥산서원을 창건했다. 호를 ‘회재’라고 지은 것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호 ‘회암’에서 따온 ‘회’자를 사용함으로써 주희의 학문을 따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5) 조선시대에 왕이 사당이나 서원 등에 이름을 지어 그것을 새긴 편액(扁額)을 내리던 일.

6) 왕이 신하에게 성 또는 이름을 하사하는 일은 수해자의 공적을 칭찬하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신하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일이었다.

이러한 업적을 남긴 회재 이언적 선생의 성리학 정신은 이후 퇴계 이황에게 이어져 영남학파⁷⁾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1610년 9월, 이황, 조광조 등과 함께 ‘동방오현’으로 불리며, 문묘에 종사되었다.

이렇게 국가의 통치와 유교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회재 이언적 선생을 모시고 있는 옥산서원은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경주에 간다면 꼭 옥산서원에 들러 그가 살아생전 추구했던 이념과 정신을 자연을 벗삼아 느껴보고 그를 기리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옥산서원 배치도



▲ 역락문

서원의 구조와 양식

옥산서원은 남쪽으로는 무학산, 서남쪽으로는 자옥산, 서북쪽으로는 도덕산, 서원 뒤쪽으로는 화개산이 위치해있어 회재 이언적 선생이 유유자적 학문을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옥산서원 안에는 회재 이언적 선생을 모시는 사당을 비롯하여 학문을 배우는 곳, 스승과 제자의 방, 서재가 있으며 이것은 형식적인 서원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문인 역락문을 지나면 바로 무변루가 있고, 지금의 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인당의 양쪽으로는 동재와 서재가 있으며, 구인당의 뒤쪽에는 회재 이언적 선생을 모시고 있는 사당인 체인묘가 있다. 동재의 오른쪽 건물들은 대부분 서원의 살림을 맡은 곳이며, 제향 영역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과 이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체인문, 체인묘, 전사청, 경각, 비각 등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학문을 연구했던 강학 영역에는 유생들의 휴식 공간인 무변루와 구인당, 민구재, 암수재 등의 건물이 있다.

7)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상의 유파.



▲ 무변루

무변루는 ‘끝이 없는 누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무변루의 마루에 서있으면 강당 앞마당이 처마 사이로 보이고 서원 밖의 계곡과 산이 한 눈에 들어와 유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쓰였다.



옥산서원에는 유명했던 서예가들의 글씨가 많은데, 무변루 편액의 글씨는 한석봉과 한호가 썼으며, 무변루와 마주보고 있는 구인당의 현판은 한석봉이 썼다. 무변루와 구인당의 현판을 쓴 한석봉을 포함해 옥산서원의 현판을 쓴 추사 김정희 선생, 서원 내의 비각의 글씨는 아계 이산해 선생의 글씨이다.

▲ 옥산서원 현판

옥산서원 앞 계곡에 있는 세심대는 이 계곡물로 마음을 씻고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연구하라는 의미를 지닌 바위이다. 옥산서원은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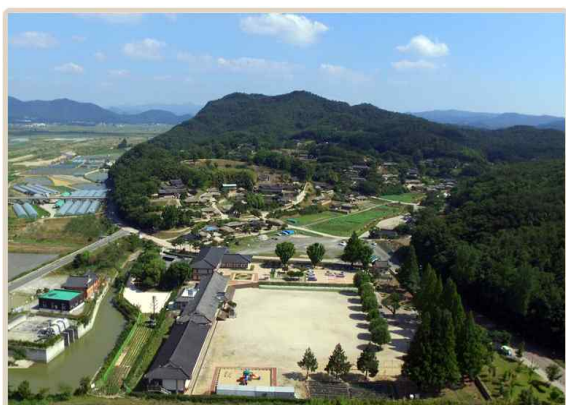
▲ 세심대

양동마을

18 정재현

과거 조선시대 문인들의 주요통치기반은 유교와 성리학이었다. 이러한 유교의 주요통치기반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동마을은 내면을 다스리는 한문으로서의 유교 사상이 공간으로 잘 구현된 사례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동마을 가옥의 사랑채와 정자 등에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더하여 경주양동 마을은 2010년 8월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제부터 양동마을 살펴보기로 하자.

양동마을과 양동마을의 형성



▲ 양동마을 전경

양동마을은 전통마을이나 민속마을이 아닌 우리나라 성리학의 태두이자 영남 남인의 종장이며 조선시대 이황, 이이, 송시열, 박세채, 김집 등과 함께 문묘 및 종묘에 동시에 배향되어 있는 성리학자이자 재상 이연적을 배출한 마을로써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마을이다. 또한, 물(勿)자 지형을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 기준으로 이중환이 택지리에 풍수지리의 4대 길지 중 하나로 꼽았을 만큼

명당임은 틀림없다. 또한, 1984년 12월 24일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되고 2010년에는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대한민국의 10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풍수지리와 유교를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 양반 집성촌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더하여 대한양 건축과 역사 사료등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이 마을은 양반의 후손이 살고있는 정주형 문화유산으로 민속촌 같은 관광지가 아니므로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양동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정확한 문헌기록은 없다. 그러나 한편 청동기 시대 묘제의 하나인 석관묘가 마을의 안산인 성주산 정상 구릉지의 100여기가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고고학자들의 보고로 보아 기원전 4세기부터 사람의 거주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광호의 재종증손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던 성균생원 찬성공 이번(李蕃)이 손소의 7남매 가운데 장녀와 결혼하여 영

일에서 옮겨와서 살고 이들의 맏아들이자 동방5현의 문원공인 회재 이언적 선생이 배출되면서 손씨, 이씨 두 씨족에 의해 양동마을이 형성되었다.

무첨당과 통감속편



▲ 손소영정

양동마을에 들어가면 무첨당을 볼 수 있는데 무첨당이라는 당호는 이언적의 적장손인 이의윤의 호로 훌륭한 조상에게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다는 뜻이다. 무첨당은 성균생원 이변이 서백당에서 분가하면서 지었음 것이라는 설과 그의 아들 이언적이 잠시 고향에 돌아와서 지었다는 설이다. 무첨당은 口자 모양의 대규모 살림집, 이언적과 정경부인 함양 박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있다. 또한, 양동마을에는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집들과 유물이 있다. 가장 중요한 유물로 세종때 찍어낸 책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통감속편”와 이언적의 외조부 사진인 손소 초상이 있다

불교- 경주의 옛 모습, 불교 국가 신라

1. 신라의 정신, 불교
2. 불국사
3. 문무대왕릉
4. 황룡사지
5. 분황사
6. 대릉원
7. 경주박물관
8. 안압지

신라의 정신, 불교

18 이주영

불교의 공인

불교는 소수림왕 372년에 고구려의 국교로 공인되며 처음 한반도에 들어왔다. 신라의 불교는 5세기 중반 눌지 마립간 때에 들어왔다. 고구려로부터 묵호자(墨胡子)라는 스님이 지금의 구미시인 일선군(一善郡)에서 거주하며 향의 이름과 용도를 알려주었다. 묵호자가 공주의 병을 완쾌시키며 신라 왕실도 불교의 존재를 깨달았으나 큰 신도를 얻지 못했다. 이후 소지마립간 시기 고구려에서 온 아도(阿道)가 불법을 전도하며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신라 왕실은 불교공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미 신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토착신앙과 씨족중심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 이차돈 순교비

하지만 씨족세력을 누르고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왕실파와 법흥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새로운 지배체제를 만들어나갔다. 불교를 반대하는 다수의 세력과 갈등 때문에 법흥왕은 정치적 입지를 잃을 뻔 했으나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 법흥왕은 527년 불교를 국교로 공인했다. 7년 뒤에 법흥왕은 천경림에 신라 최초의 절, 사적 제 15호인 흥륜사(興輪寺)를 창건하였고 왕위를 진흥왕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승려가 되어 불교에 귀의하였다.

통일 신라 이전 불교

신라의 불교는 진흥왕에 의해 크게 진흥되어 불교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진흥왕은 국민들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했고 550년에 불교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대서성(大書省)과 소년서성(少年書省)을 설치해 교단을 육성하고 통솔을 용이하게 했다. 565년 진나라의 문제가 불교 경론 2,700권을 전하였는데 이는 불교연구의 기틀을 세운 신라의 불교계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 불교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또한 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 수양 단체인 화랑도를 창설했다. 이는 불교의 미륵사상이 중심이 된 것으로

미륵을 상징하는 신라의 국선이 무리를 통솔하고 소 단체의 우두머리, 화랑이 낭도를 거느렸다.

진평왕은 이름이 백정으로 석가모니의 아버지 백정왕의 이름에서 취한 것이다. 또 왕비는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부인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마야부인이라 불렀다. 이때의 왕실은 왕즉불 사상을 따라 석가족의 왕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진평왕 시기에 활동한 원광은 신라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미덕을 덕목화하여 세속오계(世俗五戒)⁸⁾로 정리하였다. 608년에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수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승려로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달라는 글을 쓸 수 없지만 신라의 백성이므로 왕명을 따르다며 결사표(乞師表)를 쓰고 불교의 국가적 적응성을 보여주었다. 선덕여왕 때에는 분황사(芬皇寺)와 삼국의 통일과 신라의 번영을 위해 황룡사 9층 목탑, 등이 건설되었다.

통일 신라 이후 불교

통일신라 전기는 경론에 대한 설명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이때 원효, 의상 등의 스님들이 주로 활동했는데 『화엄경』의 일승원융사상(一乘圓融思想)을 기초로 하였다. 이는 불교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고 이론과 실행의 원만한 융화가 일어난 시기다. 원효대사는 한국의 불교를 정리해 사상을 토착화했고 불교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발휘하게 했다.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대중화에 힘쓰고 당대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한국 불교의 최고 고승으로 평가받는다.

경덕왕은 이전 왕들에 비해 불교를 발전시킨 왕인데 그는 745년 우금리의 한 여인이 민장사(敏藏寺)의 관음상에서 7일 기도를 드리니 행방불명된 아들 장춘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물을 내렸다. 이 이야기는 신라인들에게 나라를 그리는 마음과 보살을 섬기는 마음이 일치한 것으로 당시 신라 불교가 민족 신앙으로 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 후기 불교계는 전통적인 교종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며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혜공왕 이후 왕좌의 쟁탈이 빈번히 발생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며 나라는 어지러워졌다. 이 시기 이후 창조적이던 불교는 불교인들이 산으로 들어가거나 해외로 나가며 침체되기 시작했다. 또한 진성여왕 때에 거타지(居陁知)라는 사람이 용왕의 자손으로서 간을 빼 먹는 늙은 중을 활로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 등을 통해 불교가 순수성이 퇴색되고 주술적 신앙과 혼합되어 매우 혼탁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8) 事君以忠(사군이충) 事親以孝(사친이효) 交友以信(교유이신) 臨戰無退(임전무퇴) 殺生有擇(살생유택)

하지만 9세기 이후 선불교가 전래되어 신라불교계는 새로운 생기를 띄기도 했다. 이는 과거에 이미 전래되었으나 남종선(南宗禪)을 중국의 지장으로부터 전해받은 도의(道義)와 홍척(洪陟) 등 많은 유학승에 의해 전래되었다. 도의는 무념무심은 근본으로 하여 심인(心印)을 주장했으나 경전연구에 심취한 신라불교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체징(體澄)이 840년 가지산에 보림사(寶林寺)를 세우고 가지산파(迦智山派)를 이룩하며 전파되었다. 선불교는 교종의 전통적인 위세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교종의 사고방식에 맞서는 새로운 체질을 만들고 고대 지성에 대응하는 중세 지성의 선종을 모색하게 했다.

불국사

18 정수진

신라가 그렸던 불국의 이상, 불국사의 창건



▲ 불국사 전경

불국사는 ‘불국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佛), 국(國) 즉 ‘부처의 나라’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불로 모시는 세 부처가 한 사찰 안에 있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다리의 홍예기법과 그랭이법까지, 불국사는 통일 신라인들이 생각했던 부처의 세계인 불국토를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국사의 창건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불국사 고금창기》로, 여기에 보면 신라 법흥왕 때 법흥왕의 어머니 영제부인의 발원으로 불국사를 창건하여 574년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절을 크게 중건하면서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을 주조하게 하여 봉안하였고, 그 후 경덕왕 때 김대성에 의하여 크게 개수되면서 탑과 석교 등도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불국사 사적》에서는 이보다 연대가 앞선 눌지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하였고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에 의하여 크게 3번 증축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소규모로 창립되었던 불국사가 경덕왕 때의 재상 김대성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국사의 구조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불국사로 들어가는 계단은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이렇게 4개이다.

여기서 청운·백운교는 자하문을 통해 대웅전으로, 연화·칠보교는 안양문을 통해

극락전으로 길이 나 있다. 각각 의미가 있는데 우선 칠보교는 칠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일곱가지 보석을 말한다고 하나 한편으론 부처의 본질인 깨달음의 일곱가지 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도 있다. 일곱가지 덕성을 칠각지라 하는데 택법, 정진, 회 , 경인, 염, 정, 사 가 그것이다. 이런 일곱가지 덕성이야말로 부처를 존중하는 귀중한 가치, 칠성재가 된다고 한다. 또 연화교의 모양을 보면 연꽃무늬가 계단에 새겨져 있다. 연꽃잎을 밟으며 앞에 있는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한 듯 싶다.

청운교는 백운교와 함께 보아서 전체 33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33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아직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33가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즉 다리를 통해 깨달음에 다다르고자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아래로는 18단의 청운교가 있고, 위로는 16단의 백운교가 있는데, 청운교는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백운교는 흰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 연화교와 칠보교 (왼쪽), 청운교와 백운교 (오른쪽)

극락전

안양문을 통해 들어가면 아미타여래를 봉안하고 있는 극락전이 보인다. 현재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뒤에 영조 26년에 오환, 무속 등에 의해 중창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극락전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청면이 측면보다 작은 정방형에 가까운 건물이다.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뒷면의 도리칸 주칸은 정면과 달리 4칸으로 한 것이며, 정면에서도 3칸이기는 하나 중앙칸에 2개의 샅기둥을 넣어 5칸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 중앙칸의 크기가 18척이나 되는 긴 주칸이라서 위에서 오는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보조 기둥을 달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극락전의 본존불로 봉안된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비로전의 비로자나불과 동일한 조각 기법과 양식 그리고 주조 기법을 보여준다. 양손은 각각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아미타 구품⁹⁾인 가운데 하품 중생인을 맺었지만 좌우 손의

위치가 바뀐 점이 특징이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 후기 조각양식으로 연결되는 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불상의 조성 시기를 8세기 말 내지는 9세기 초로 보는 다른 견해도 있다.



▲ 극락전(왼쪽)과 금동아미타여래좌상(오른쪽)

비로전

위치는 무설전 서쪽 뒤편인데 비로자나불¹⁰⁾을 모신 법당이다. 비로전은 751년에 창건되고 1593년에 임진왜란으로 불타 버린 뒤 현종 때 중수되었으나 그 뒤 황폐되어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73년 중창 불사 때에 다시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현재는 정면 5칸 측면 3칸인데, 극락전과 마찬가지로 뒷칸이 정면보다 1칸 많은 6칸으로 되어있다.

비로전 안을 보면 비로자나불이 있다. 이 비로자나불상은 앞선 극락전의 금동아미타불 좌상과 현재 국립 경주박물관에 있는 백률사의 금동 약사여래 입상과 더불어 통일신라 3대 근동불의 하나이다. 원래 대웅전에 모셔져 있었지만 일제 때 아미타불상과 함께 극락전으로 옮기고, 그 뒤 비로전이 중창되자 비로전으로 옮겨져 주불상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극락전의 아미타불상과 동일한 조각 기법과 양식을 보여준다. 수인은 비로자나불의 대표적인 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권인¹¹⁾을 취했는데 아미타불과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가 반대이다.

9) 아미타불이 취하는 9가지 수인으로 중생들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뉜 뒤 다시 3개로 나누어 9개로 나눈 것을 9품이라 한다.

10) 모든 부처님의 본체, 곧 진리의 몸이다. 바이로차나(Vairocana) 혹은 비로차나(Virocana)란 산스크리트 말을 한자음으로 음역하여 비로자나 또는 비로사나라 부른다. 이 뜻은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의미이다.

11)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수인으로 왼손 집게손가락을 펴서 위쪽 오른손 주먹 속에 넣는 것으로 법계로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웅전

대웅전 앞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두 탑인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다. 금당 앞에 두 개의 탑이 있는 쌍탑일금당 형식으로 통일신라때 주로 사용된 방식이다. 다시 대웅전을 주목하자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이다. 건물 내부에는 중앙부에 수미단의 불단이 있고 그 위에 목조의 석가 삼존불이 안치되었다. 삼존불은 중앙에 석가모니불이 있고 그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이 협시하였고 다시 그 좌우에 흙으로 빚은 가섭과 아난의 두 제자상이 모셔져 있다.



▲ 대웅전

석가탑·다보탑



▲ 석가탑(왼쪽)과 다보탑(오른쪽)

이 두 석탑은 각각 느낌이 다른데, 석가탑이 남성적인 직선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면 다보탑은 화려하고 섬세한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석가탑은 목탑의 형식을 하고 있는 석탑이다. 통일신라때 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석탑이나, 상륜부가 없었는데 현재로써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남원 실상사 삼층석탑의 상륜부를 본떠

1959년에 다시 만들었다. 1966년에 석탑 해체 수리 때 사리와 함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다. 이 경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신라의 목판인쇄술의 발전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보여준다,

다보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여지는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다른 탑보다 높은 기단부는 이 탑이 지상의 탑이 아니라 하늘의 탑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탑신부에서도 4각과, 8각, 원을 사용하면서 더더욱 탑은 특별해진다. 다보탑이 일반적인 다른 탑과 다른 모양을 한 이유는 법화경에 나오는 다보탑의 형상을 구현하고자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법화경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상징하는 견보탑품이라는 조가 있다. 이 조의 내용은 석가여래가 묘법연화경을 설법하는 것을 전대 부처인 다보여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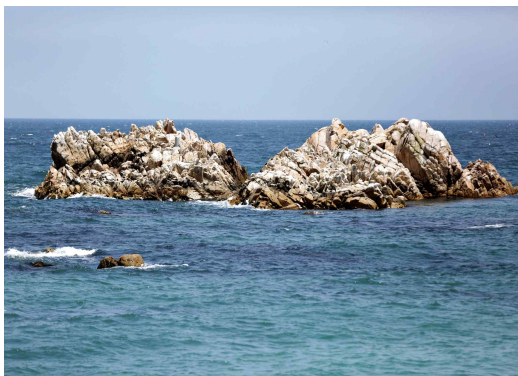
탐을 통해 나와서 그의 설법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탐 안에 그의 자리를 받을 비켜 석가모니와 함께 앉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보탐은 법화경을 사상적 배경으로 법화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무대왕릉

18 문성은

불법을 받들어 용이 된 문무왕의 수중릉

문무대왕릉은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이며 대왕암이라고 한다. 신라의 설화에서 문무왕이 아들 신문왕에게 만파식적¹²⁾을 주어, 자신이 죽은 후 바다의 용이 되어서 만파식적을 불면 용이 나타나 나라의 안위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설화처럼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한 뒤 불안정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킬 뜻을 가졌다. ▲문무대왕릉의 모습



그래서 지의법사에게 유언으로, 자

신의 시신을 불식에 따라 고문 밖에서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묻으면, 용이 돼서 나라를 평안하게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서 유해를 육지에서 화장해 동해의 대왕암 일대에 뿌리고 대석에다 장례를 치렀다. 사람들은 그 유언을 믿어 그 대석을 대왕암이라고 불렀다.

대왕암은 육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가까운 바다에 있다. 큰 바위가 주변을 둘러싸고, 중앙에 약간의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대석을 이동시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대왕암 주변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큰 바위가 둘러싸고 있는데, 네 방향으로 물길이나 있어서 주변 바위는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물길이 나 있는 상태지만 튀어나온 부분을 떼어내어, 물길이 난 가운데 공간을 인위적으로 약간 가다듬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중앙으로 진입할 때 파도가 소멸되다 보니 중앙의 물은 잔잔하며, 물 높이는 항상 중앙의 큰 바위를 살짝 덮을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다보니 대석의 안치 방법과 유골의 수장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지만, 대왕암 내부 또는 아래에는 유골이나 부장품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대왕암에서 멀지 않은 육지에 ‘낭산’이라고 신성시되는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는 ‘능지탑’이라는 탑이 있다. 문무왕의 시신이 이 능지탑에서 화장되어 대왕암 주변에 산골하며, 대왕암 주변 바위에서 절리된 큰 바위를 중앙의 빈 공터에 남북으로 안치해 장례를 지내는 형식적 절차를 가짐으로써 왕릉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12) 나라의 불안과 걱정이 해결된다는 신라 전설상의 피리

한다. 대왕암의 네 방향으로 수로를 낸 까닭은 석가의 사리를 안치한 탑의 형식을 적용하였다.

문무왕의 모습

문무왕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문무왕은 백제정벌에 이어 고구려 정벌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후 신라에 대한 당의 야욕을 알아채 당의 세력을 몰아내는 전쟁까지 치렀다. 삼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업적을 세우며 통일 신라의 찬란한 문화시대를 연 문무왕의 유언은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다.

“이때까지 우리 강토는 삼국으로 나누어져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제 삼국이 하나로 통합돼 한 나라가 되었으니 민생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 그러나 동해로 침입하여 재물을 노략질하는 왜구가 걱정이다. 내가 죽은 뒤에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의 평화를 지킬 터이니 나의 유해를 동해에 장사 지내라. 화려한 능묘는 공연한 재물의 낭비이며 인력을 수고롭게 할 뿐 죽은 혼은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숨을 거둔 열흘 뒤에는 불로 태워 장사할 것이요, 초상 치르는 절차는 힘써 검소와 절약을 좇아라”¹³⁾

문무왕은 태자 시절부터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이다. 진덕여왕 때 당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으며, 늦어서 왕위에 오른 아버지를 도와 병부령¹⁴⁾의 자리에서 나라의 기강을 잡았다. 아버지인 무열왕은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한 승전보 속에서 생애를 마쳤으나, 아들 문무왕은 백제의 부흥 운동을 제압하고, 고구려를 쳐서 멸망시키며 당나라 군사마저 쫓아내기까지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했으며 성공적으로 그는 해냈다. 삼국 통일이후 그는 불교를 통해 새롭게 편입된 영토의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회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쳤던 것으로 이해되며 군사적으로 크게 공을 세운 이들을 위해 사찰을 건립하기도 했다.

문무왕의 이름은 법민(法敏)이며 아들인 신문왕의 이름은 정명(政明)이었다. 법민과 정명을 다시 배치해본다면 법정(法政)·민명(敏明)을 만들 수 있다. 문무왕과 신문왕 2대에 걸쳐서 신라는 법과 정치가 민첩하고 밝게 이루어지길 소원한 법정, 민명이라는 이름처럼 그런 나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문무대왕릉을 보면서 문무왕의 호국정신과 당시의 민명이었던 신라의 정신을 다같이 느껴보면 좋겠다.

13) 『삼국사기』 문무왕 21년(681)조

14) 법흥왕때 설치되어 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병부의 장관

황룡사와 황룡사역사문화관

18 최시영

황룡사와 황룡사지



▲ 경주 국립박물관 내의 황룡사 모형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에 건설된 신라 최대의 사찰이다. 황룡사는 건설 설화가 있는데 경주의 동쪽에 궁궐을 짓는 도중에 황룡이 나타나서 궁궐을 사찰로 바꾸어 지어 생긴 것이 황룡사라는 것이다. 황룡사는 17년간의 중건 끝에 완성되었고, 황룡사의 중심에 있는 목탑은 백제의 목공인 이바지가 건축하여 2년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황룡사지는 말 그대로 황룡사의 터이다. 황룡사는 고려 고종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불타 전소되었다. 황룡사구층목탑은 한 변이 22.2m 이고, 한 면이 150평이며 높이는 80m라 추정된다.

황룡사의 건축 배경

위에서 간략하게 말했듯이 황룡사는 원래는 궁궐을 지으려했던 곳 이었다. 왕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궁의 건설을 포기하고 절을 지을 정도로 황룡사의 증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황룡사는 원래 늪과 강을 메워서 평지로 만들고 평지위에 기반을 닦은 것이다. 원래는 왕궁을 지으려 했기에 황룡사 근처는 도로와 배수 시설 등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을 기본으로 갖춘 상태 이었다. 이때 도로의 형태는 신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특정 방위에 축을 맞추어 바둑판과 같은 형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동서·남북방향의 도로이다. 이는 도성 내 택지 분할체계의 기본 골격이 되는 격자문 도성¹⁵⁾의 주된 형태이다.¹⁶⁾ 이는 사찰로 바꾸면서도 유지 되었고, 황룡사가 신라의 중심에 있게 되어 국가의 중심에 있게 된다. 사찰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도 상관없음을

15) 격자문 형태의 도성제는 중국西漢말에 『周禮』 「考工記」가 출현한 이래, 도시계획의 기본 형식이 되었다. 즉 주나라사람들이 창립한 이 도시 계획 방법은 중국 도시 계획의 전통방법으로 발전하였고, 후대에 적용될 때에는 지형에 따라損益加減이있어서 도시형식이 도성제도의 규정과 똑같지는 않게 되었으나, 도시의 배치방식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 특징이 보존되어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최선자. (2013). 신라 황룡사의 창건과 진흥왕의 왕권 강화. 한국고대사연구, 72, 119-151. 128쪽 재인용

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앞의 책, p.554

통해서 불교의 권위가 높았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모두 황룡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용은 불교와 왕권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띄는데 불교에서는 호국의 의미를 왕권에서는 왕의 권위를 나타낸다. 또한 용은 백성들에게는 태평성대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龍은 陰類라 出入에 때가 있다.’¹⁷⁾ 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불길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도부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용이 출현한 자리에 원래 지으려했던 왕궁이 아닌 사찰을 지음으로써 불교에서 수호신의 의미를 지닌 용을 다시 불러들이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을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용이라는 상징적인 영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황룡사를 종교적인 마음의 중심점으로 인식하게 하여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황룡사구층목탑



▲ 황룡사 9층 목탑 모습

황룡사 구층목탑은 황룡사가 지어질 당시에 지어진 탑이 아니다. 황룡사는 진흥왕시기에 지어진 반면에 목탑은 선덕여왕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과 여왕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왕권에 대항하는 반란 등을 막기 위해서 불교의 힘을 빌려 왕권을 세우고자 황룡사에 목탑을 세웠다. 목탑의 배경에는 자장율사가 선덕여왕을 설득하여 황룡사 내에 탑을 짓게 된다. 그래서 백제의 목수인 이비지¹⁸⁾를 데리고 와서 9층 목탑을 지었고, 각 층에는 주변국 (일본, 중화, 오월, 탁라, 백제, 말갈, 단국, 여적, 고구려)들을 상징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려 고종(1238) 몽골의 침입으로 그 시기까지 재건과 보수를 이어온 탑

이 소실된다.

목탑은 각각의 층이 아홉 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점에서 종교적 의미의 탑 말고도 등대와 같은 도시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역할도 했으며 왕권의 드높음을 상징하며 왕권과 같이 불교의 권위 역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7) 『晉書』(진서) 사마의 (권29, 지제19 오행 하)

18) 백제의 목공으로 목탑을 만들고 자결했다고 한다.

황룡사역사문화관

황룡사지안에 있는 박물관으로 황룡사의 가상복원과 구층 목탑을 작은 모형으로 축소한 것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신라의 연구와 고증을 가속화와 황룡사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한다. 황룡사역사문화관은 황룡사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황룡사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황룡사지에서 발굴하는 동안에 얻게 된 유물들이 박물관내에 존재한다. 치미¹⁹⁾, 찰주본기²⁰⁾, 사리함, 불상 등 발굴도중에 나온 물품들이 전시되어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에는 황룡사와 관련된 설화 등의 이야기에 대한 것 또한 전시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술거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다²¹⁾. 2층에는 황룡사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존재한다.

19) 고대의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기와

20) 찰주본기는 최고의 탑지로 평가를 받는다. 찰주본기의 제3판의 안쪽에는 이전까지의 중수 과정과 창건·중수 과정을 정리하고 목적이 밝혀져 있으며, 외면의 제3판부터 제1판까지 중수를 주도한 관리들, 참여한 승려들과 내·외직 관리들, 황룡사·감은사의 승려들 등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열되었다. 마지막에는 이 글을 새긴 사람들이 적혀있다.

21) 술거가 그린 그림이 소나무와 너무 똑같이 생겨 새들이 머리를 박고 죽었다는 설화

분황사

18 고현진

분황사 소개



▲ 분황사 모전 석탑

보다 훨씬 큰 규모에 황룡사의 2/3정도의 웅장한 넓이였지만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 이후로 많은 유물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분황사는 모전석탑을 비롯하여 화쟁국사비, 비석대·석정·석조·초석·석등·대석과 사경 이외에 22)당간지주가 남아 있어 보존되고 있다.

국보로 지정이 된 분황사 모전 석탑은 분황사 소개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석탑이라 할 수 있다. 분황사는 왕분사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 절은 선덕여왕 3년인 634년에 세워져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모란 석탑은 현재는 윗부분이 붕괴되어 높이는 9.3m 정도에 3층이다. 원래는 9층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전해지지만 확실치는 않다. 원래의 분황사는 지금

분황사와 선덕여왕

분황사는 향기 날 분(芬) 임금 황(皇) 절 사(寺)자를 써서 향기 나는 여왕의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절에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을까? 선덕 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한 인물이다. 이는 나라 안에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여왕으로서의 신용을 보여야 하고, 나라 밖 사람들의 불신과 견제에 맞서야 했다. 선덕 여왕은 지혜로운 왕으로도 유명했는데, 선덕 여왕이 이 지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삼국유사에도 적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모란 그림과 선덕 여왕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꽃 그림을 선물로 하였는데 벌과 나비가 없는 꽃만이 있는 그림이었다. 이에 선덕여왕은 그 그림을 보자마자

22) 당(불화를 그린 기)을 고정하던 장대로, 당간을 지탱하기 위해 양옆에 세워두는 기둥이다.

당태종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바로 당제가 나의 짝이 없음을 희롱한 것이다’²³⁾ 선덕여왕은 이에 맞서 자신이 향기 나는 황제임을 알리기 위해 향기 나는 황제의 절이라는 뜻의 분황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어진 분황사는 신라를 지키는 호국룡이 살고 있는 신성한 절로 여겨졌다.

분황사 석탑에서 나온 유물 중에는 여성과 관련이 된 유물도 여러 개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분황사는 신라가 세워진 이래 최초로 여성이 왕위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하고 상징적인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덕 여왕의 지혜로 인해 탄생한 분황사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손상되고 소실된 유물은 많지만 분황사 고유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향기 나는 황제의 절’이라는 의미가 담긴 분황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분황사와 스님

분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고승 원효와 자장 두 사람이 거쳐 간 사찰로도 명성이 높다. 643년 자장이 당나라에서 돌아옴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불전을 장식하는 물건들과 대장경의 일부 물건들을 가져와 귀국을 했다. 선덕여왕은 그에게 분황사에 머무르라고 권유했으며 꽤 오랫동안 분황사에 머물렀다고 한다. 원효는 이 절에 머물면서 「화엄경소」, 「금광 명경소」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또한 그는 해동종을 완성했는데 분황종이라고도 한다. 그의 아들인 설총은 아버지 원효가 죽은 뒤 이 절에서 아버지의 소상을 만들어 모셨고 이 소상은 고려후기까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절에는 많은 사람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술거라는 사람이 그린 관음보살상이나, 755년에 불상 주조로 유명한 강고 내 말이라는 사람이 만든 약사 여래상이 있다.

23) 『삼국유사』 권1 기이1 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조

대릉원

18 김세희

신라를 대표하는 고분(古墳)들의 집합소

대릉원의 명칭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지냈다’는 기록에서 따온 것이며, 신라시대의 왕족 등의 무덤이 모여 있다. 고분은 전부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신라시대의 독특한 무덤군이다. 내부가 공개되어 있는 천마총을 포함 하여, 약 3만 8000평 규모의 23기의 능이 솟아 있다. 남아 있는 23기의 능을 제외하고도 무덤 자리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봉분이 있는 무덤들만 남겨두고 지웠다고 한다. 무덤양식은 돌무지 덧널무덤으로 도굴이 어려운 형태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금관과 과대 용기류 등 토기와 생활용품이 출토되어 고신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천마총



▲ 천마도의 모습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에 조성한 고분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 1973년 당시까지 발굴 조사된 고분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완형에 가까워 신라의 왕릉급 대형고분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이 고분의 축조 연대에 관해 말하자면, 서기 270년~410년 사이로 추정한다. 목관, 수장궤 및 천마도²⁴⁾, 금관이식 등은 다른 무덤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이다. 즉 황남동에서 6세기

초의 무덤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지증왕의 왕릉이라 생각된다.

미추왕릉

이 릅은 신라 제 13대 미추왕²⁵⁾의 능이다. 미추왕릉 또한 경주 황남동 고분군 가운데 잘 정비, 보존되고 있는 대릉원 내에 있다. 이 릅은 죽장릉(竹長陵), 죽현릉(竹現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에 얽힌 전설로서 죽엽군 이야기가 『삼국사

24) 국보 제 207호, 경주시 천마총에서 출토된 2장의 장니.

25) 미추이사금, 재위 262~284. 신라 최초의 김씨 임금.

기』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기재된 ‘대릉’, ‘죽장릉’ 혹은 ‘죽현릉’은 지명이 아니고 미추왕이 김씨계의 시조왕이기 때문에 붙여진 또 하나의 능호이다.

신라시대 왕릉의 위치표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시 했던 것은 명찰(名刹)이었는데, 그 시행은 미추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미추왕릉의 의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미추왕릉

황남대총



▲ 황남대총

황남동고분군은 현재까지 복원되어 있는 외형이 황남대총은 신라 최대의 봉토분(封土墳)이다. 황남대총은 1980년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붙여진 별칭으로 황남동에 소재한 신라 최대의 고분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남대총 남분의 피장자는 남자, 북분의 피장자는 여자이며 신라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고분의 축조연대는 신라시대에 있어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의 축조 상하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발굴을 통해 남분은 4세기 중엽경, 북분은 4세기 말~5세기 초경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고구려남정설이라는 고대사 연구를 근거로 삼는 연구자들은 황남대총 남분을 5세기 중·후반, 북분을 6세기 초로 편년하기도 한다. 이렇듯 유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황남대총을 방문하여, 역사적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여겨진다.

경주박물관

18 이지원

신라 문화의 핵심이 담긴 곳

경주박물관에 입장하면 신라역사관, 특별전시관, 신라미술관, 월지관, 옥외전시, 종각, 어린이박물관, 수목당과 고청지 그리고 서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몇몇 문화재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성덕대왕 신종

먼저 옥외전시에는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다. 에밀레종에는 두 가지 설화가 있다. 첫 번째 설화는 나라에서 주종사업을 계속 실패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때 한 노인이 나타나 부처님께 시주할 것이 없으니 어린애라도 가져가라고 한 여인의 불경한 말 때문에 실패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노인은 그 여인의 아이를 데려와야 종이가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절의 주지는 재물을 거두러 다녔던 중들을 불러 어떤 여인이 그러한 말을 했는지 확인한 후 여인의 아이를 빼앗아 끓는 솥물에 어린 애를 던진다. 그 뒤에야 종이가 완성된다.



▲성덕대왕 신종

두번째는 종을 만들던 일전이 계속 주종에 실패하자 모두가 비난한다. 일전의 누이는

종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부덕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 때 시주 온 종이 그녀에게 어린애를 인주로 해야 종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누이는 결국 오빠를 위해 자신의 딸을 바쳐 비로소 종을 완성하게 된다는 설화가 있다.

성덕대왕 신종의 무게는 18.9톤, 종의 하부 구경이 222.7cm, 전체 높이가 366cm인 문화재이다. 종 몸체의 곡선미가 두드러진 게 특징이며 조각과 문양이 아름답다고 평가된다. 통일신라시대 효성왕은 성덕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사찰을 건립했으며, 경덕왕 역시 선왕의 명복을 받들려는 효성에서 범종사업을 하다가 승하한다. 결국 그 다음 왕인 혜공왕이 부업을 이어 771년에 완성하게 된다.

자칫 성덕대왕 신종을 단순한 옛날 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종을 알아야 하는 이유, 즉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충분한 이유를 알아보자.

높은 가치로 평가 받는 종소리란 잡음과 왜곡 없이 맑은 소리가 나고, 낮고 높은 소리의 조화로운 배합, 소리가 사라졌다가 되살아나는 것이 반복되는 맥놀이, 초기의 타격을 후에도 지속하는 여음이 긴 종소리를 의미한다. 성덕대왕 신종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덕대왕 신종의 음통(또는 음관)은 큰 피리 모양의 원통이며 그 속은 비어 있어서 종의 내부의 소리가 이 원통을 통해 밖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된 신라만의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종을 타격하는 부위인 당좌는 종을 설계할 때에 미리 정해서 8개의 앞으로 된 보상화문을 이중으로 겹친 아름다운 연꽃문양으로 주조된 것이다. 이 당좌의 방향과 위치는 가히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야구 배트의 홈런 치는 점과 일치하여 종을 타격할 때 종결이 현가 부분에 최소의 힘이 작용하므로 종 현가부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종결이 부위의 마찰력도 최소가 되어서 종소리의 여음이 길어지고 경쾌하게 소리가 난다. 또한 종 위에 있는 조각과 문양의 비대칭적 특성에 의하여 위상이 다른 두 소리가 발생된다. 여기에 이들이 적절히 감해지고 합해지는 간섭에 의해 소리의 세기가 일정한 주기로 맥놀이 현상²⁶⁾이 발생한다.

금관

다음으로 신라역사관을 들어가면 신라왕의 무덤이었던 천마총, 황남대총, 금관총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신라시대 때는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호화스러운 물품들을 무덤 속에 넣어 놓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천마총에서 발굴된 금관이다. 이는 전형적인 신라식 금관으로, 원형대를 전면에는 세 줄기의 출(出)자형 입식이, 후면에는 두 줄기의 사슴뿔 모양 장식이 세워져 있다. 여기에 영락과 곡옥으로 금관 전체가 장식되어 있다. 다른 금관에 비하면 금관이 두껍고, 4단의 출(出)자형 입식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약 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함과 화려함이 눈에 띄는 것을 보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될 만



▲금관

26) 소리의 세기가 일정한 주기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현상.

한 문화재임을 알 수 있다.

이차돈 순교비

신라가 불교를 공인할 수 있도록 한 위인인 이차돈을 알리는 이차돈순교비 역시 이곳에 있다. 비의 높이는 1.04m, 각면의 너비 29cm이며, 이차돈공양당으로도 불린다. 1914년, 사지로부터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석당은 화강암제로 만들어진 육면 기둥에 방형의 석재 윗면을 육각형의 복련으로 새긴 대좌 위에 세워져 있는 상태이며, 원래 당위에 옥개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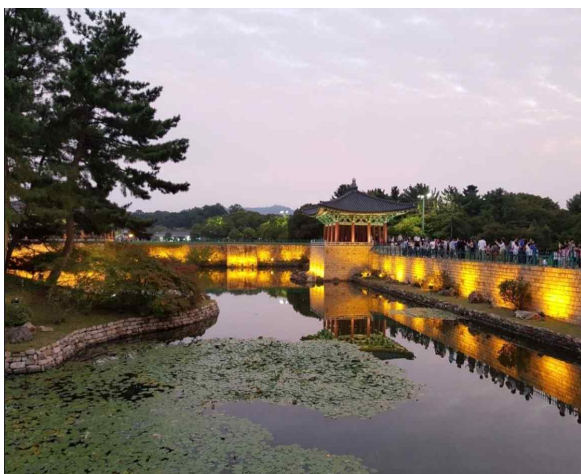


▲이차돈순교비

비의 제 1면에는 이차돈의 순교장면을 부조하였으며, 제2~6면에는 정간을 치고 각 정간에 자경 3cm의 글자를 새겨 놓여져 있다. 각 면의 명문은 마멸이 심하다보니 절반 정도만 판독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며, 이 석당기를 목판에 새긴 법첩 흥린군신각금생서, 원화첩이 전래하여 마멸된 부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차돈 순교비는 이차돈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와 함께 제1면의 화상은 당대의 조각연구 및 복식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안압지

18 정윤아



▲ 안압지

안압지는 신라 원지²⁷⁾(苑池)를 대표하는 유적이며 통일신라시대 왕궁의 별궁터이다. 고고학적 조사에 의해 주목할 만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여 안압지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고고학에서 유물 발굴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압지는 『삼국사기』 문무왕 14년조²⁸⁾에 의해 삼국통일을 전후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674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679년에는 규모가 큰 동궁을 새로

건설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임해전(臨海殿)이다. 임해전은 귀빈을 접대하거나 군신들이 연회 또는 회의를 하던 곳이다. 임해전의 확실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다만 현재까지는 건물 터의 초석만 발굴되었다.

임해전 터는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지나가는 등과 같은 이유로 많은 훼손을 입었다. 임해전 터의 못 주변에서 회랑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크기의 건물터 26곳이 확인되었는데 신라의 건물터로 보이는 5개의 건물터 중 3곳과 안압지를 복원하였다.

연못의 동서 길이는 약 190m이고 남북 길이는 약 190m의 장방형 평면이다. 면적은 1만 5,658평방미터(4,738평)이며 호안 석축의 길이는 1,285m이다. 연못가의 호안은 다듬은 돌로 쌓아졌으며 동쪽과 북쪽은 절묘한 굴곡으로 만들어졌다. 서쪽과 남쪽에는 건물을 배치하여 직선으로 만들었다.

안압지에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완형 유물만 1만5023점에 달한다. 출토되었던 와전류(瓦塼類) 중 알려지지 않았던 형태의 특수 기와, 보상화문전²⁹⁾이 발견되었다. 이는 문헌의 기록과 일치함을 확인시켜주었고 신라 와전류

27) 나무가 있는 연못을 뜻한다.

28) “2월에 궁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29) “調露二年漢只伐君若小舍……三月三日作……(조로2년한지벌군약소사……3월3일작)”이라는 기년명(紀年銘)이 있다.

문양편년(文樣編年)에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발견된 토기류에는 신라시대의 생활용구들이 있었으며, 금동제품과 당시 건축양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목조건물의 부재 및 장신구·목선·목간 등도 출토되었다. 부장품적인 성격을 띠는 신라 무덤의 유물들과 다르게 못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국립경주박물관의 서쪽에 위치한 안압지관에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700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용된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못에서 출토된 유물로 국립경주박물관의 안압지관 하나를 다 채우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단일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한 전시관을 채우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안압지에서 출토된 토기들

<참고문헌>

<지역개관>

1. 안동지역개관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경주 북부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돌베개, 200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 근현대사4』, 도서출판 성심, 2010.

박결순, 「일제강점기 안동인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한국국학진흥원, 2012, 275p.

“안동”, <안동시청 공식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안동지역 고지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geo/contents/con_map_list.jsp?c1=02&c2=B&c3=E03

2. 경주지역개관

김영이의 3명,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생활문화와 관광체계」, 『한국사상과 문화』, 제 60권 0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세종실록지리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경주”, <경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ko/index.do

“경주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865&cid=46618&categoryId=46618>

[경주지역 고지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유교- 유교 그리고 서원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 선생의 일생

1. 선조들의 생활학문, 유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유교, Confucianism, 儒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9.03.0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9115&cid=46649&categoryId=46649>
김도연, 『원시유교에서의 통치규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제 7권, 1997

2. 유교문화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2006년, 14~26쪽
한국국학진흥원 유교 문화 박물관 공식사이트

<http://www.confuseum.org/>

[유교 문화박물관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kstudy0700/220667533509>

(한국국학진흥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3. 도산서원

서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94985&cid=46615&categoryId=46615>

이상해, 『궁궐 유교건축-한국 미의 재발견 12』, 솔, 2004.

박영순, 「도산서원(陶山書院)과 퇴계종택(退溪宗宅)」, 『국토』, 통권 402호, 2015, p. 68.

이준, 「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조선조의 통치사상을 완성시킨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 『재정포럼』, 3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9, pp. 82~85.
차장섭,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정치(政治), 사회적(社會的) 역할(役割)과 위상(位相)」, 『역사교육논집』, 54권 0호, 역사교육학회, 2015, pp. 151~187.

최석규 외 1명, 「조선시대 국궁의 사회·문화적 기능 : 대사례·향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 2009

4. 회재 이언적

이언적(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2712&cid=46649&categoryId=46649>

권용옥,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과 양동(良洞) 마을」, 『유학연구』, 26권 0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2, pp. 1~30.

유명종, 「이언적의 철학사상」, 『한국철학연구』, 중권, 1978.

이도남, 「정의와 원칙이 통하고 반칙이 없는 세상을 위한 외침_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선비, 회재 이언적」, 『월간 공공정책』, vol. 140, 2017, pp. 102~105.

5. 독락당

“경주 독락당”, <한국민족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3843&cid=46673&categoryId=46673>

“이언적”, <한국민족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2712&cid=46649&categoryId=46649>

유명중, 「이언적의 철학사상」, 『한국철학연구』, 중권, 1978.

6. 옥산서원

“옥산서원”, <국가문화유산포탈>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이상해, 『한국 미의 재발견-궁궐, 유교건축』, 솔출판사, 2004.

“옥산서원”. <한국민족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602&cid=46615&categoryId=46615>

“옥산서원”, <경주문화관광>

http://guide.gyeongju.go.kr/gj_guide/index.html

7. 양동마을

권용옥,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과 양동(良洞) 마을 = Yi Eon Jeok and Yangdong Village」, 2012년, pp.1-30.

안재희, 「경주 양동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연구 = A study on the location and space organization of Yand-dong village in Gyeong-juby Feng-Shui Theory(geomancy)」, 2019.

서정호, 『한옥의 미』, 경인문화사, 2010.

김환대, 「경주양동 안동하회마을: 한옥과 자연이 숨 쉬는 500년 전통 마을 이야기」, 지식파수꾼 경향미디어, 2010.

불교- 경주의 옛 모습, 불교 국가 신라

1. 신라의 불교

최진구, 『신라 五岳과 불교의 산신신앙 연구』, 신라문화, 2013.

“불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948&cid=46648&categoryId=46648#TABLE_OF_CONTENT14

유성웅, 『한국불교미술대전』, 한국사전연구소, 한국색채문화사, 1994.

2. 불국사

“불국사”,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4868&cid=40942&categoryId=33545>.

“경주 불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7668&cid=46648&categoryId=46648>.

“불국사”, <불국사 공식홈페이지>

http://www.bulguksa.or.kr/bbs/content.php?co_id=history.

“불국사”, <문화재청>

http://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searchCnd=&searchWrd=&home=total&mn=&gubun=search&query=%EB%B6%88%EA%B5%AD%EC%82%AC.

신영훈, 『토함산에 이룬 이상세계 불국사』, 조선일보사, 2004.

박경식, 『석조미술의 꽃 석가탑과 다보탑』, 한길아트, 2003.

김산현, 『불국사』, 대원사, 1992.

최준식,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열두가지』, 시공사, 2002.

<불국사 홈페이지>

http://www.bulguksa.or.kr/bbs/content.php?co_id=history

3. 문무대왕릉

김효형외 3명, 「대왕암」, 『답사여행의 길잡이 2 - 경주』,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12.

김복순, 「문무왕의 불교정책」, 신라문화, 학술단체, 1999, 10p.

『삼국사기』, 문무왕 21년(681)조

4. 황룡사와 황룡사역사문화관

『삼국유사』

『삼국사기』

최선자. 신라 황룡사의 창건과 진흥왕의 왕권 강화. 한국고대사연구, 2013.

박원호. 황룡사 구층탑, 삼국 통일을 이끈 솟대. 콘크리트학회지, 2012.

5. 분황사

“분황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923&cid=46648&categoryId=46648>.

“분황사”, <분황사 홈페이지>

<http://www.bunhwangsa.org/>.

이회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塼石塔說’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 20권, 2011년, pp.39~54.

『삼국유사』, 권1 기이1, 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조.

6. 대릉원

박종준, 「답사여행의 길잡이2-경주」,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12, 212p.

「경주지구 고분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5.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1992.

김정기 외, 「황남대총(북분)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5.

7. 경주박물관

이장무, 「성덕대왕신종」, 『한국사 시민강좌』, 제23호, 1998.

권영숙, 「신라시대 천마총 출토 직물의 유형과 특성」, 『현 경주박물관 소장직물을 중심으로』, 제7호, 2000.

최완수, 『이차돈(異次頓)의 순교(殉教)』, 대원사, 2011.

“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http://gyeongju.museum.go.kr/>

8. 안압지

『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문화재대관-사적편-』, 문화재청-문화재관리국, 1976.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청-문화재관리국, 1978.

장경호, 「통일신라시대의 궁전건축」, 『고고미술』, 한국미술사학회, 1984, pp.162~163.

“경주 동궁과 월지”, <국가문화유산포탈>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333700180000.

“안압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876>

ENDING CREDIT

지도 교수님
이상국 교수님

편집자
18 이현석
18 문성은

제작자

역사기행반

-THE END-